

치주 - 보철 환자를 위한 최종수복물의 설계

(Final Restoration for Periodontally Compromised Patients)

연세대학교 보철학교실 이근우 교수

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정상 치주조직과 다른 환경을 가진 치아를 위해 보철물을 제작할 때 주의하여야 할 몇가지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.

1. 정상 치주와 병적 치주의 차이점

정상적인 치주와 병적인 치주는 *Sulcus depth*, *Junctional epithelium*, *Connective tissue attachment* 등이 다르므로 보철치료시 고려하여야 한다.

2. Crown Contour

정상적인 치아는 보통 치은이 CEJ을 덮고 있지만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 퇴축이나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 CEJ이 노출되고 치근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 부위의 *Contour*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매우 어렵게 된다. 이것에 대한 *Guide line*을 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.

3. Proximal Contour

*Interproximal embrasure*는 치은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므로 이 부위에 대한 보철물 설계시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한다.

4. Restoration of Furcation Involved Molar

상하악 구치 치근의 형태를 통해서 쉽게 침범되는 치근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*Grade*에 따른 최종 보철물의 형태와 주의 사항을 열거하기로 한다.

5. Restoration of Root-Resected Molar

성공률과 예후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철물 설계시 참고하여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자 한다.

6. Occlusion

7. Maintenance Program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이며 치주 건강에 유리한 보철물 설계를 하므로써 치주-보철 환자의 구강상태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.